

## 암환자의 가발응용 헤어코디네이션에 대한 연구

장 미 희, 여 진 동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 The Research about Wig-Utilizing Hair Coordination for Cancer Patients

Mi Hee Jang, Jin Dong Yeo

*Department of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Kosin University*

#### <Abstract>

There become more people suffering from cancer, so the number of cancer patients are increasing as well. However, cancer patients should go through a lot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stress because of side effects of drugs, especially alopecia, during the treatments for cancer. Especially female patients relatively more take care of their appearance, therefore it imposes much more psychological stress for them.

Most of the patients choose wig as an alternative, bu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choose right wigs because of their lack of knowledge about wigs. Wigs not only make up for the bald hair but helps aesthetically if patients choose right wig which goes well with their face, and eventually helps patients have self-esteem and makes them be positive in their social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o offer right data and qualitative aid about wig, so that it can enhance the quality of cancer patients' lives.

**Key Words : Quality of Lives, Wig, Cancer Patients**

## I. 서론

### 1. 연구개요

우리나라의 생활패턴이 서구화, 도시화가 되면서 암환자 수가 급증하며 암에 걸려 치료를 받는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 진료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암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02년 21만 8735명에서 2001년 25만 1125명, 2002년 29만 1820명, 2003년 31만 4652명, 2004년 36만 3863명으로 4년 만에 14만5128명이 늘어 66.3%의 증가율을 보였다. 신규 환자도 2001년 10만5천 237명, 2002년 11만 147명, 2003년 11만 4천 793명, 2004년 11만8천 192명 (남자 6만 4132명, 여자 5만4060명)으로 16.1% 늘어났다.

한국 중앙 암 등록본부의 암 등록 자료에 의하면 1992년의 신규암환자 등록건수는 61,930건이었는데 2002년

에는 122,770건으로 10년 사이에 약 2배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6대 암이 전체암 발생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암 등록 자료의 장기별 등록 분율을 보면, 남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순으로 이들 4대 암이 남자 암 발생의 2/3 차지하며, 여자의 경우는 유방암,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폐암 순으로 이들 6대 암이 여자 암 발생의 2/3 차지하고 있다.

암환자들에 있어서 항암치료는 항암제의 종류와 항암요법에 따라 여러 형태의 부작용을 유발시킨다. 탈모, 즉 머리카락이 빠지는 부작용은 신체적 고통보다 환자에게 심리적인 영향이 큰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이다. 대개 항암화학요법 후 1~2주부터 빠지기 시작하여 2개월이 되면 완전탈모에 이른다. 대개 처음에는 빗질을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며, 심한 경우 머리카락 이외에도 신체의 다른 부위의 모(毛)도 빠질 수 있다. 치료동안과 모발이 자랄 때 까지 환자들은 대처방안으로 가발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여성에 있어서 미적인 부분의 상실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착용기간도 환자에게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1~2년 정도 이다. 가발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회적, 기능적, 위생적, 생리적, 효율적, 미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암환자에 있어서 가발이란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표 1. 우리나라 호발 암의 등록건수

단위 : 건(%)

순위	전 체		남 자		여 자	
	암 종류	등록 수(%)	암 종류	등록 수(%)	암 종류	등록 수(%)
1	위 암	19,970(20.2)	위 암	13,301(24.0)	위 암	7,317(16.8)
2	폐 암	11,741(11.9)	폐 암	8,876(16.0)	폐 암	6,669(15.3)
3	간 암	11,174(11.3)	간 암	8,541(15.4)	간 암	4,674(10.7)
4	대장암	11,097(11.2)	대장암	6,423(11.6)	대장암	4,144(9.5)
5	유방암	7,359(7.4)	유방암	1,759(3.2)	유방암	3,979(9.1)
6	갑상선암	4,817(4.9)	갑상선암	1,660(3.0)	갑상선암	2,865(6.6)
	기 타	32,867(33.1)	기 타	14,838(26.8)	기 타	13,979(32.0)
	합 계	99,025(100.0)	합 계	55,398(100.0)	합 계	43,627(100.0)

주. 보건복지부, 2002년 한국 암 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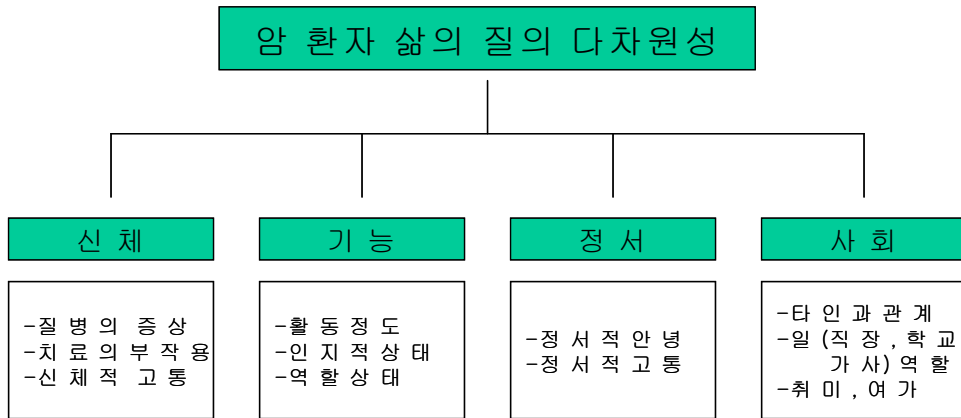


그림 1. 암 환자 삶의 질에 대한 다차원성

암 환자 삶의 질 구조는 다차원성(multidimensional) 흔히 신체, 기능, 정서,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림 1>과 같이 구성해 볼 때 암환자에 있어 가발작용은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주며 사회활동의 참여를 높인다 볼 수 있다.

## 2. 문헌고찰

### 1) 암환자의 가발응용 헤어코디네이션에 대한 연구

일반적으로 암(cancer)은 개체의 필요에 따라 규칙적이고 절제 있는 증식과 억제를 할 수 있는 정상세포와 달리 조직 내에서 필요한 상태를 무시하고 무제한의 증식을 하는 미분화 세포로 구성되어 종괴 또는 종양을 형성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주위의 정상조직 또는 기관을 침윤하여 파괴시키고 원발병소로 부터 개체의 어느 기관이든 전이하여 새로운 성장 장소를 만들 수 있어 개체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질환군을 총칭한다.

이러한, 암은 대체로 병리학적으로는 원발병소가 기인되는 조직세포에 따라 상피성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암종(carcinoma), 비상피성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육종(sarcoma)으로 크게 구분한다.

이를 다시 기원 부위에 따라 암종은 편평상피암, 선암, 기저세포암, 흑색종 등으로 구분되며, 육종은 섬유종, 골육종, 혈관육종, 림프절암, 백혈병, 근육종 등으로 세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암환자들에게 대부분 20~30년 전에 개발된 케미칼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고, 환자들은 탈모, 구토, 통증 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로 인해 대다수의 암환자들은 이 같은 극심한 통증과 부작용에서 벗어나길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암환자가 항암치료에 따른 탈모와 통증에 굴복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형적으로 가발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북동부에 있는 코네티컷주에서는 항암화학요법 인해 탈모 증상이 나타난 암환자들에게 남들에게 고통 받는 암환자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 가발을 착용코자 할 때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환자들은 내분비계통의 약화로 인하여 열이 위로 올라가 두피의 땀발생량이 많으므로 가발을 구입할 때 위생과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항암화학요법이 끝난 후 약 1개월 후부터 머리카락이 자라나므로 두피

를 청결하게 해주어야 한다.

### 1. 모발

모발은 포유동물만이 가지고 있으며 피부의 부속기관이며, 사람의 경우 모발의 발생은 태생 9~12주부터 시작된다. 개개인의 모발의 성질은 어머니의 태내에서 이미 결정되고 모모세포는 피부 내에 깊게 모낭(hair follicle)을 형성한다. 모낭은 태생 3개월부터 만들어 일정한 수의 모낭을 유지한다. 몸 전체는 약 200만본 이 있으며 두 발에는 약 10~14만 본을 유지한다.

모모세포는 12시간 마다 세포분열을 통하여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며,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이나 비타민 기타 영양분은 모유두(hair papilla)로 전달되어 모발이 자라난다. 모발은 자라는 부위에 따라 길이나 굵기가 다르며 경모(terminal hair)와 연모(lanugo hair)로 구분된다.

모유두는 원형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모세혈관은 모발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을 모유두에 전달하고 자율신경은 아미노산이 모유두에 도착하면 자율신경에 따라 단백질 합성효소는 원료인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케라틴 단백질을 만든다.

사람의 모발형상은 인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모발의 단면형상에 따라 직모(straight hair), 파상모(wavy hair), 축모(curly hair)로 구분된다. 직모는 대부분 황인종에 많고, 파상모는 백인종, 축모는 흑인종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모발은 직모라 해도 음모나 액모는 파상모 또는 축모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모발의 발생부위에 따라 형상의 차이가 있다.

### 2. 탈모

사람의 모발에는 모주기가 있어 일정한 기간 후에는 휴지기가 와서 두피로부터 탈락하게 된다.

모발은 똑같은 성장속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낭 하나하나에서 독립적으로 자라며 모발은 성장기(3~6년)를 거쳐 퇴화기(1~1.5개월)를 지나 휴지기(4~5개월)의 사이클로 두피로부터 탈락하게 되는데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새로운 모발이 생긴다. 이 주기를 모주기라 한다. 모주기와 관계없이 빠지는 것을 탈모증이라 한다. 모발의 수명은 남성은 약 3~5년이며 여성은 약 4~6년이다. 모발의 수는 약10만~14만본 이며 모발의 성장속도는 하루에 약 0.4mm 자라며 하달에 1.2~1.5cm정도 자란다.

머리카락은 하루 평균 약 50~100 본 정도가 자연 탈모로 되며 하루에 100본~200본 이상 빠지면 이상탈모증으로 보아야 한다. 암환자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1차 항암화학요법 후 이상탈모가 시작되어 2차 항암화학요법 후 완전 탈모가 되어 민머리가 된다.

모발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모유두에 있는 모모세포가 분열중식 하는 것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 3. 가발

가발에는 전체가발(wig) 과 부분가발(남성-toupee, 여성-top piece)로 나누어진다. 암환자의 경우는 전체가발을 착용하여야 하며 민머리상태에서모발이 어느 정도 자랄 때 까지 약1년~2년 정도 착용해야 하므로 가발을 선택할 때 평상시 자신의 헤어스타일의 모양과 헤어칼리는 동일시하며 가발디자인은 자신의 얼굴형태의 단점을 보완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발을 선택 할 때 관리하기 편리해야 하며, 가발착용표가 나지 않고 자신의 모발처럼 보여져야하며, 자신의 모발처럼 스타일 변형이 자유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암환자들은 두피가 항상 습한 상태가 많으므로 피부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발이 통풍이 잘되는 것을 선택하여야한다.

사례 : 암환자를 위한 가발

발명의 명칭(TITLE OF THE INVENTION) 암환자를 위한 가발

특허 제 10-0598719 호

발명자 (INVENTOR) 장미희

- (a) 항암치료와 같은 약물로 인해 머리가 탈모된 환자들의 머리 보호를 위해서 두피와 직접 밀착되도록 머리 상부 측으로 형성된 두피 밀착캡과 두피 밀착캡의 하부 측으로 통풍이 잘되면서 머리의 굴곡과 알맞은 망사형태로 형성된 망사네트를 바이오항균원단, 황토원단 및 숯 원단을 합성한 소재로 형성하여, 두피의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부염, 피부드러블 을 방지하는 생체친화성이 향상된 소재이며, 천연향이온 물질이 미생물의 세포벽을 파괴시켜 항균과 방취 효과가 뛰어나 장기간 가발을 착용하는 암환자 또는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가발을 착용함으로써, 모발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유해세균과 악취로부터 보호하여 인체의 유익하면서 착용성이 뛰어난 가발을 제공하는데 있다.
- (b) 가발의 머리에 부착되는 이마에서 귀에 이르는 라인의 전면 측으로 톱니형상의 톱니부를 형성하여 전면에서 바람이 불어도 톱니형상의 치형 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가 가발의 이탈을 방지하고, 전후로 형성된 톱니형상으로 가발의 머리부를 식모하여 형성함으로써, 톱니의 형상에 따라 식모된 머리가 탈모되지 않은 보통 머리의 형성된 잔머리 형상으로 연출하여 가발이 아닌 자연머리와 같이 자연미를 향상하고, 뒤로 올리는 스타일의 머리를 형성하여도 천연의 머리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도록 형성함에 따라 이탈을 방지하면서 자연미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 (c) 가발의 이마부분과 귀 및 하부 목과 연결되는 측으로 형성된 집착부를 인조피부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소재 및 실리콘소재로 형성하여 고정함으로써, 약물치료 및 방사선치료로 두피가 약화된 암환자의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 하면서 흔들림과 움직임을 감소시켜 가발의 고정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 (d) 두피와 밀착되는 두피 밀착 캡에 인체공학적인 설계에 의해 48등분의 수제공법을 이용하여 원사나 인모를 증모시켜 자유자재로 머리 스타일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두피에서 생성된 머리와 같이 자연스러우면서 아름다운 가발을 제공하는데 있다.
- (e) 머리 후부에서 목에 이어지는 망사로 형성된 망사네트의 하단 목 부분으로 길이가 조절되는 조절밴드를 형성하여 고정구로 머리의 형태에 따라 알맞은 크기로 고정함으로써, 두상의 크기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대시키는데 있다.
- (f) 두피의 혈행(血行)을 향상시키는 경혈점들 즉, 정수리의 백회, 전두엽의 상성, 관자놀이의 두유, 턱 부분의 완골, 목 부분의 천주와 아문이 형성된 장소에 게르마늄, 자석, 수정, 옥, 비취, 원석 등을 부착하여 혈행을 도우면서 건강한 모발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압부를 가발에 형성하여 두피를 지압하여 건강한 모발을 형성하면서 가발이 미끄러짐을 방지하여 건강한 모발의 생성함과 동시에 가발의 고정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 4. 암 환자를 위한 가발 응용 헤어 코디네이션

##### (1) 둥근형(Round face)

둥근 얼굴형은 수평방향으로 3등분하였을 때 중앙 부분이 넓게 보이며 둥근형 헤어라인은 양턱은 짧고 각이 없으며 곡선형으로 이루어져 얼굴형의 길이가 거의 같아 보이며 길이가 짧게 보인다.

둥근 얼굴은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 둔해 보이는 인상을 주기도 쉬우므로 이마는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고 헤어라인을 길게 떨어뜨려 얼굴이 가름하게 보이는 스타일이 좋으며 옆머리에 볼륨을 살리는 웨이브 스타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둥근형의 얼굴 형태를 가진 여성일 경우에는 귀여운 이미지를 살려주면서 옆의 볼륨을 없애주고 C.P(Center Point) 부분에 액센트를 높이고 포인트를 주는 가발이 잘 어울리며 전체적으로 단차 컷트가 되어 있는 세미쇼트(Semishort)나 울프컷(Wolf cut)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20대 여성은 단발스타일이나 롱스타일을 선호하는데 단발스타일로는 턱까지 내린 보브 스타일로 단발형 컷트스타일이 어울리며 옆 가르마를 타서 긴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는 스타일이 어울린다.

둥근형의 30-40대 여성은 프론트 머리를 꾸며준 쇼트 보브 스타일이나 센타 부분이나 사이드 부분에서 얼굴을 약간 감쌀 정도의 컷트가 어울린다.

사이드에서 헤어라인을 페이스 라인으로 가볍게 돌려준 내츨렬한 쇼트보브 스타일이나 웨지 헤어스타일 중에 뒤부터 앞을 향해 내츨렬하게 커트한 헤어스타일이나 사이드 머리를 샤프한 느낌이 나게 커트한 쇼트스타일이나 사이드에서 흘러내리는 웨이브형 쇼트스타일이나 사이드 가르마에 양 사이드를 짧게 깎고 센타 부분에 볼륨을 준 쇼트헤어가 어울린다.

50대 이상의 여성은 퍼머넨트 하어 컬 한 부분을 업 시킨 프론트 부분에 포인트를 주면 단점이 보완된다.

##### (2) 타원형(Oval face)

타원형은 중앙부분이 넓어 보이고 아래 부분은 좁아 보이며 헤어라인은 둥글며 양턱은 각이 없고 곡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타원형의 얼굴형은 어떤 가발을 착용해도 표현이 잘 되므로 장소나 분위기에 따라서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발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더 자기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업 시킨다.

타원형의 여성은 여성스러움과 지적인 이미지나 청순한 이미지 등 가발선택폭이 넓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장 많은 위안을 받는 여성들이다.

셋팅 스타일이나 전체적으로 굵은 웨이브스타일도 잘 어울린다.

원 랭스보브(One-length Bob) 스타일 중에서 정수리에서 방사 형태로 머리가 흘러내리며 프론트 사이드 네이프에 걸쳐서 각각 같은 길이로 컷트 된 코케티쉬(coquettish)한 보브 스타일이나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한 원랭스 스타일과 롱 웨이브스타일 이 어울린다.

중년의 여성은 온화하며 지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 단정한 안마를 단발스타일에서 정수리 부분만 웨이브를 접목시키든지 웨이브형 쇼트스타일도 짧아 보이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시킬 수 있다.



내추럴쇼트 (등근형, 타원형)

루즈한웨이브(타원형)

웨이브형쇼트(타원형, 역삼각형)

그림 2 - 얼굴형에 어울리는 Wig 1

### (3) 사각형(Square face)

사각형의 헤어라인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양쪽 턱은 각이 있어 돌출되어 보인다. 따라서 사각형의 이마와 턱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얼굴형은 짧으며 얼굴의 넓이와 길이가 거의 동등하다.

얼굴이 커 보이는 형태이며 가발을 선택할 때 신중을 해야 한다. 이 얼굴형은 강하지만 품위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므로 원숙한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이나 활동적인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헤어스타일의 삼분법은 volume, line, point로 나눌 수 있다. 사각형의 탈모고객은 헤어스타일의 삼분법을 잘 접목 시켜서 표현하면 보다 나은 헤어스타일을 연출 할 수 있다.

리젠트(Regent)스타일과 같은 사이트의 머리를 찰싹 붙여 뒤쪽으로 흘린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며 베리쇼트한 스타일에 프론트를 약간 불룩하게 세운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 또 보이쉬한 자연스러움과 레이어드가 살짝 들 어간 쇼트스타일도 잘 소화된다.

50대 중년 여성은 이마를 open시킨 루즈한 웨이브의 쇼트헤어나 반올뺨한 쇼트헤어가 어울리며 센타 부분을 살려주며 네이프 부분은 모장이 짧은 웨이브가 잘 어울린다.

### (4) 역삼각형(Inverted triangle face)

역삼각형의 얼굴은 윗부분은 이마가 넓으며 아래턱 부분이 좁고 뾰족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헤어라인 부분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얼굴형은 얼굴 면적보다 길이가 짧게 느껴지는 얼굴이다.

역삼각형의 얼굴은 지적인 이미지와 쌀쌀한 여성적인 이미지와 스마트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귀의 아래쪽으로 풍만함을 살려주는 것이 좋으며 세미롱 스타일이 어울린다. 지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단정한 보브 스타일도 잘 어울린다.

원랭스보브 스타일 중에 사이트를 부풀려준 미디움 보브 스타일이 어울리며 머리끝을 안 말음스타일이나 바깥말음 헤어스타일 형태가 어울린다.



미디움쇼트(타원형,역삼각형)

웨이브쇼트 (타원형)

웨이브헤어(역삼각형)

그림 3. 얼굴형에 어울리는 Wig 2

프론트에서 페이스라인에 걸쳐 머리를 넘긴 롱 헤어스타일이나, 엘레강스한 분위기가 나는 웨이브헤어나 짧은 형태의 웨이브 쇼트도 발랄한 느낌을 준다. 하프컬의 미디움 헤어나 네이트 부분이 경쾌한 올컬 헤어도 세련미를 나타낼 수 있다. 하프컬로 전체를 맡은 스타일에 무스 등을 사용해 업 시킨 세련된 이미지의 쇼트헤어도 잘 어울린다.

정수리를 중심으로 방사 형태를 이룬 웨이브헤어 스타일이나 보이쉬한 레저컷트의 쇼트헤어가 어울린다.

#### (5) 다이아몬드형(Diamond face)

얼굴 중앙부분이 넓으며 돌출된 형으로 상하 부분이 좁은 게 특징이다.

다이아몬드형의 양턱은 약간의 각진 것 보다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긴 얼굴에 속하는 편이다. 다이아몬드형의 얼굴형은 적극적이며 자신감이 넘치는 이미지이며 도전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귀밑의 턱 부분이나 광대뼈에 각진 얼굴형은 옆머리를 양쪽으로 늘어뜨리거나 옆 가르마로 각진 얼굴을 커버하거나 얼굴을 노출시켜 깔끔한 헤어로 연출하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 다이아몬드형은 광대뼈를 살짝 덮는 컷스타일은 자신의 결점을 더욱 눈에 띄게 하므로 과감하게 노출하는 헤어스타일을 해야 하며 포인트 없이 이마를 덮은 스타일은 강하고 답답한 인상을 풍길 수 있으므로 앞머리를 내릴 때는 턴닝 처리를 하여 가볍게 해주든지 아니면 살짝 가려주는 것이 좋으며 귀는 과감하게 노출시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각진 얼굴의 강한 이미지를 부드럽게 이지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헤어스타일이 좋으며, 20~40대 여성은 옆 가르마나 센타 가르마의 자연스러운 웨이브의 롱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며 50대 이상의 여성도 웨이브를 살려주는 짧은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다이아몬드형은 가르마 위치가 중요하며 옆 가르마로 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앞가르마로 청순함을 그리고 가르마 없이 흘러내리는 스타일은 성숙하고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형은 섹시한 이미지가므로 개성적인 연출을 하는 것이 좋다.





세미쇼트(타원형,다이아몬드형) 탑포인트쇼트(둥근형,사각형)마갈말음쇼트(역삼각형)

그림 4. 얼굴형에 어울리는 Wig 3

화려하며 럭셔리한 느낌의 퍼머넨트 웨이브나 굵은 퍼머넨트 웨이브가 어울리며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를 표현시키는 것이 좋다.

다이아몬드형은 원랭스보브 스타일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사이드 가르마의 루즈한 웨이브의 롱 헤어나 끝부분에만 퍼머를 하여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며 20~40대는 컬리 헤어스타일 중에 프론트의 머리가 한쪽 눈을 감싸게 한 쇼트의 컬리 헤어스타일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50대 이상의 여성은 이미지가 강해보이지 않게 부드러운 웨이브와 귀를 내놓은 깔끔한 스타일의 굵은 웨이브형 쇼트, 핸드 쇼트 가 어울린다.

### III. 결 론

세계적으로 암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암환자는 항암화학요법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인한 탈모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 활동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며 스트레스와 다양한 우울상태를 나타낸다. 특히 여성에 있어서 헤어 부분은 미적인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심리적으로 더욱 부담이 된다.

대부분의 암환자는 대처방안으로 가발을 착용하는데 가발관련 상식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어려움이 있으며 암환자를 위한 전문 위그디자이너가 없는 실정이다.

암환자에게 있어서 가발은 일반인이 패션으로 사용하는 목적과는 다르며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하여 내분비계통의 기능 저하로 두피가 약하며 습하므로 암환자의 두피에 맞게 기능적으로 만들어 저야하며 두피에 직접 접촉되므로 위생적이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암환자들의 심리는 자신이 암환자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발착용을 숨기고 싶어 하고 불안해하는 심리현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발이 자신의 모발처럼 자연스러워야 하며 밀착도가 좋아 바람이 불어도 불안 해 하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암환자에게 있어서 가발은 필수품이다. 탈모를 커버하는 목적뿐 아니라 자신의 얼굴의 단점을 보완하여 더욱 아름답게 보여 진다면 심리적으로나 사회활동에 있어서 더욱 긍정적이며 암과의 투병 에도 효과적이며 암환자

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암환자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암환자에게 맞는 가발을 계속 연구, 분석, 개발해야 하며 많은 암환자 전문 워그디자이너가 배출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이은현, 송영숙, 전미선, 오가실(2005), 암 환자 삶의 질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2. 이은현(2005),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a Quality of Life scale for Korean Patients with Cancer.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 이승훈(2004), Development of strategy for improving cancer pain control. 국립암센터
4. 국립암센터(2005), 국가 암등록 사업
6. 장미희, 장태수(2003), 모발관리 & 가발
6. 장미희(2002), A study on Hairpiece Applications and Hair coordinations for Depliatory Customers
7. 임 준(2005), Different Survivorship of Major Cancers According to Income Levels in korea
8. 채병윤(1999), 모발의 생장과 탈모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